



동국대동창회보

발행인 元容璇
편집인 宋在晩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The Dongguk Alumni News / <http://dongguk.or.kr>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007년(단기 4340년) 5월 1일 제208호

은행지로번호 7500891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 · 년회비:2만원

동국대학교 제16대 오형교 총장 취임 World Wide Dongguk 비전 선포



▲ 지난 2007년 2월 26일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총장 이취임식

〈관련 기사 2면〉

공 고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이사회 - 2007년 5월 30일(수) 오후 6시 30분

총 회 - 2007년 5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안건 : - 2006 회계년도 결산의 건

- 2007 회계년도 예산(안)의 건

- 기타 안건

- 임원(회장·감사) 선임의 건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교육과 연구·인재·경영시스템이 경쟁력 갖춰야” 오영교 총장 모교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오영교 前 행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모교 제16대 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오 신임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대학은 가장 경쟁력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가장 경쟁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우수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실천하는 대학이 되어야만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스피디한 경영의 실천장이 되어야 하고, 연구소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연구의 도량이 되어야 하며, 가정보다 더 유쾌한 삶의 터가 되어야 한다”고 모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홍 前 총장은 이임사에서 “이제 5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공부하고 봉사하던 모교를 떠나게 된다”고 밝히면서 “우리대학은 백주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승 기운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을 이끌어 갈 새 집행부가 화해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궈내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우리 모교 동

국대학교의 새로운 한 세기를 여는 올해, 그동안 뛰어난 리더쉽과 열정으로 모교를 발전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홍기삼 총장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새로운 동국 역사를 창조할 제16대 오영교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한 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공기업 CEO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경영의 혁신 모델을 만들고 성공신화를 창조한 신임 총장님의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청사진이 실질적인 학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20만 동문들의 신뢰와 지지를 보내다”고 말했다.

중강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원용선 동국대 총동창회장,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해찬 前 국무총리, 이명박 前 서울시장,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김문환 국민대 총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어윤대 前 고려대 총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학생, 교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학업과 인격양성에 정진해야” (재)동우장학회 20명에게 장학금 지급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이사장=김동정·53/57법학·변호사·분회 부회장)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모교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동우장학회 김동정 이사장, 구자선 이사, 한진수 부총장,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 김규환 학생복지실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20명(서울캠퍼스 12명·경주캠퍼스 8명)에게 2천만원(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동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생 여러분들은 보다 훌륭한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총장과 모든 교직원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따라 자신을 갈고 닦는데 정진해야 한다”며 학업과 인격양성에 전념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한진수 부총장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준 김동정 이사장과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후 “여러분들이 공부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캠퍼스

- ▲권지은(인도철학전공4년) ▲김미란(영어영문학전공3년) ▲정해원(생물학과4년) ▲정재철(법학과2년) ▲정새미(신문방송학전공4년) ▲김초롱(정보관리학전공4년) ▲김상훈(산업공학전공4년) ▲우윤미(식물자원학전공4년) ▲조두용(전기공학4년) ▲채영란(수학교육과3년) ▲송유진(서양화전공3년) ▲김은지(경영학전공4년)

■ 경주캠퍼스

- ▲최종택(한국음악과3년) ▲김윤희(불교회화전공4년) ▲권용호(멀티미디어공학전공4년) ▲이정미(사회복지학과4년) ▲양지연(국제통상학전공4년) ▲원안나(한의학과2년) ▲채송아(간호학과2년) ▲박성병(경영학전공3년)

이상 20명 (서울캠 12명 / 경주캠 8명)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



▲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70/74정의·한나라당·분회 이사) 충남 서산시장 당선자는 “26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서산의 잠재력을 일깨워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40.4%의 투표율을 보인 서산시장 재선거 개표장은 초반 유 당선자와 이복구 후보 간의 엇치락뒤치락하는 역전극이 거듭돼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유 당선자는 2월 조규선 전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자 시장권한 대행을 맡아왔다.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91행원·前 양천구청장) 양천구청장 당선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에서 제외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훈구 후보가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기소된 뒤 1월 사퇴하면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동우장학회 김동정 이사장 취임 이흥파 이사 장학기금 2천만원 기부



▲ 김동정 이사장



▲ 이흥파 이사

(재)동우장학회는 지난 2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김동정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흥파(관음종 총무원장) 이사가 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을 쾌척하기로 해, 그중 1천만원은 2월말에 입금됐으며, 나머지 1천만원은 오는 5월중에 기부하기로 했다.

범어사는 梵魚寺 아닌 範魚寺

고려시대 이전 기록으로는 고려말에 편찬된 삼국유사에 단 1번만 출현하는 지금의 부산 동래구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魚寺)가 10-11세기 무렵 고려초기에는 ‘범어사(範魚寺)’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동문회 총회 및 친선 골프대회

- 일시 : 2007년 6월 9일(土) - 6월 10일(日)
- 장소 : 중국 북경
- 참가예정동문회 : 북경동문회, 천진동문회, 상해동문회, 청도동문회, 동북3성동문회
- 초청외부인사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미국 총동창회

동국대 '108 프로젝트 선포식' 개최

'고객만족-고객감동', '효율' 위한 청사진 제시



모교는 지난 3월 13일 중강당에서 교수, 학생, 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8 프로젝트 선포식'을 가졌다. 오영교 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에 선임된 직후부터 총장직무 준비단을 구성하고, 약 3개월 동안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임 4년의 기본방향이 될 '108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

108 프로젝트는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됐던 '동국 비전 및 발전목표 공모', '신입총장과의 대화' 등에서 접수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오 총장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와 처실장급 및 중진교수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도출된 미래전략이다.

108 프로젝트에는 모교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도 현실적인 발전전략들이 담겨 있다. 오영교 총장은 이날 <내부 고객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한 특성화와 분권화, 국제화를 통해 5개분야 국내 최고, 3개 분야 세계 최고수준 달성을 발전목표로 설정했다. 108 프로젝트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신 경영시스템 창출 ▲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 재정확충 및 건전화 ▲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108가지 세부 전략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영교 총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배 이상의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진리일 것"이라며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구성원을 모두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자"고 구성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 준우승



을 빼앗겨 8:7로 역전 당한 우리대학은 9회말 선두타자 이영욱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1사 2루를 만들었지만 후속타 불발로, 결국 단국대에게 우승컵을 내주었다.

이날 3루 측 관중석에서는 우리대학의 백상응원단과 함께 재학생 300여명과 원용선 본회 회장,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동문 100여명이 자리해 열띤 응원을 보여줬으나, 아쉽게도 승리의 여신은 우리대학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성한, 이강철, 한대화, 송진우 등 스타선수들을 배출하며 80년대 대학야구의 강자로 군림하던 우리대학은 이번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 준우승을 비롯해,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동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교 야구부가 '2007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 4월 16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단국대와 결승전에서 우리대학은 5:1로 뒤지던 7회말 조정민의 중견수 희생플라이와 이영욱의 2점 홈런으로 4:5까지 따라붙었고 8회에 안타 4개를 묶어 3점을 뽑으면서 7:5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다.

그러나 9회초 단국대의 공격에서 3점

어성선 씨트론 대표

센서 달린 타이어로 벤처신화 쓴다

부천 테크노파크 단지에 입주해 있는 씨트론(SEETRON)의 어성선(78/85 경영) 대표는 건설회사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자동차 부품 개발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된 벤처 사업가다. 이 회사가 최근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타이어 센서,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력을 모니터링해 주는 장치로 이미 생산된 차량에 장착하는 애프터마켓용 제품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국내의 타이어 센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양산 차량 중에서 타이어 센서가 달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

나 수입 차량에 타이어 센서가 일반화되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은 생산 라인을 키우는 것보다 기술 개발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니치마켓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R&D) 중심의 회사로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벤처 신화를 향한 어 대표의 당찬 포부다.



동국대학교 인사

<서울캠퍼스> △학사부총장 겸 대학원장 한진수 △정각원장 겸 기숙사관장 박문기(宗浩)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 이법산 △문과대학장 정성호 △이과대학장 김해중 △법과대학장 이상영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양영진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병철 △생명과학대학장 겸 실험농장장 이명훈 △공과대학장 겸 정보산업대학장 조성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김혜숙 △예술대학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 김방욱 △영상대학원장 차승재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강성운 △교양교육원장 박명관 △국제교육원장 겸 국제화추진단장 김일중 △사회교육원장 정창근 △전략기획본부장 이형우 △학사지원본부장 이상일 △사업개발본부장 곽노성 △운영지원본부장 백경선 △경영관리실장

조의연 △입학처장 고유환 △산학협력단장 박형무 △정보관리실장 김양우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취업지원센터장 조훈영 △중앙도서관장 석원경 △캠퍼스기획단장 김홍일

<경주캠퍼스> △부총장 손동진 △정각원장 최창식(法慧) △불교문화대학장 겸 불교문화대학원장 이만 △법정복지대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 오영석 △인문과학대학장 이한구 △과학기술대학장 이동웅 △경영관광대학장 김오우 △사범교육대학장 백경임 △한의과대학장 김장현 △의과대학장 이규춘 △전략기획본부장 이계영 △학사지원본부장 이시영 △운영지원본부장 신익종 △입학처장 심규박 △산학협력단장 이동웅 △정보관리실장 오승현 △학생경력개발원장 박상범 △도서관장 이정일 △국제교류교육원장 김명철 △사회문화교 육원장 김세곤

<서울캠퍼스> ◇본부 실팀장 △혁신

관리팀장 박상관 △CS경영팀장 박서진 △전략예산팀장 박군서 △교무팀장 조원생 △학생서비스팀장 김성근 △사업개발팀장 박정훈 △기금조성팀장 윤동규 △캠퍼스기획팀장 박동수 △총괄지원팀장 정경섭 △재무회계팀장 박환오 △구매팀장 박광호 △입학관리팀장 한문우 △R&D사업팀장 신기훈 △산학협력팀장 이창화 △정보기획팀장 이국환 △정보운영팀장 김재선 △취업지원센터장 손재영 ◇대학(원) 및 부속교육기관 학사운영실장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이성진 △문과대학 박만규 △이과대학 김종진 △법과대학 황주환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구태희 △경영(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 이경식 △생명자원과학대학 이견배 △공과대학 및 정보산업대학 안재봉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김종백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이강현 △영상대학원 및 영상미디어학부 문용주 △언론정보산업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오광진 △교양교육원 박승중 △사회교육원 김영진 ◇부

속기관장 △체육실장 신관호 △교육방송국장 김윤길

<경주캠퍼스> ◇본부 실팀장 △전략예산팀장 송익균 △경영평가팀장 김영기 △홍보·사업개발팀장 최정훈 △교무팀장 김영수 △학생서비스팀장 김근목 △총괄지원팀장 이진형 △재무회계팀장 노동영 △입학관리팀장 박치만 △산학협력팀장 이강석 △정보기획운영팀장 오강희 △취업지원센터장 이상기 △학술정보관리팀장 박장승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채찬호 ◇대학(원) 및 부속교육기관 학사운영실장 △불교문화대학원 및 불교문화대학 안석호 △인문과학대학 박용하 △과학기술대학 이철우 △사회과학대학원 및 법정·복지대학 김경호 △경영·관광대학 박정우 △사범교육대학 권혁배 △한의과대학 정성호 △의과대학 김한경 △사회문화교육원 석광열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팀장 류인수 ◇부속기관 팀장 △금장생활관 관리팀장 박해구

회장과 감사 3인 선출 · 5월 21일까지 접수해야 5월30일 69차 정기이사회 및 26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 제23대 임원의 임기가 오는 5월 끝남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 3인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작년 4월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본회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동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본회 회보 제205호 11면에 전문이 실려 있음)

임원 등 선거규칙에 따르면 제3조 선거방법에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으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제7조 등록신청에는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회 정기이사회가 5월 30일 개최됨에 따라 5월 21일까지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이력서, 서약서, 후보자 자격요건 증빙 서류)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

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우편, 문자전송을 보낼 수 있으며, 선거당일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후보자 성명 중 2자 이상이 정확하게 기재된 투표는 유효)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참관인(3인 이내)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한다. 당선자의 결정은 유효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투표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회장 당선자가 본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발전기금 기부 약정 내용을 당해연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부터 회장 당선자의 당선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http://dongguk.or.kr>) 공지사항에서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로동문 초청 조찬회 본회 발전 방안 논의하는 자리



▲ 원용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30분 앰배서더호텔 2층 VIP실에서 원로동문 초청 조찬회를 갖고 동창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용선 회장을 비롯해 권노갑(49/53경제·前 국회의원·본회 고문) 前 회장, 김동정(53/57법학·변

호사·본회 부회장) 동우장학회 이사장, 홍과(63/67불교·본회 부회장)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박영철(49문학·본회 지도위원) 울산개발(주) 회장, 이연택(56/61법학·본회 부회장) 前 대한체육회 회장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공 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문은 임원 등 선거규칙 제7조에 의거 2007년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총동창회 사무처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

1. 이력서
2. 서약서(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서약서)
3. 후보자 자격요건 증빙서류(제8조). 끝

※ 임원 등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서약서 등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http://dongguk.or.kr>) 공지사항에서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위 원 장 : 조창현(64/68경영) ■ 부위원장 : 손학중(65/69농경)
- 위 원 : 위종성(64/71농경) 김대식(66/70통계) 강영규(70/77경영) 김진익(73/80경영) 김창규(80/84법학)

제8조 후보자 자격요건

- 1) 본회 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본회 회장 후보자는 등록 시까지 본회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명시한 별첨 서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서약서

1. 본인은 회장 후보자 등록시
 - 가. 본회 회관 건립기금 또는 본회 운영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본회 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고
 - 나. 본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본회 회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본회 발전기금 5억원 이상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부 약정한 위 발전기금 5억원 이상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한다.
2. 본인이 제1항 나호 단서 후단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 임원 선거규칙 제26조에 따라 본회 회장으로서 당선은 그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한다.

東國人으로 힘찬 출발 신입생 후배님들 환영합니다



2007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교내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신입생 3,137명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총장 입학허가 선언 ▲장학증서 수여 ▲총장 입학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단과대학장 소개 ▲교가제창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교 총장은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 이번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성인으로서, 그리고 대학인으로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됨과 함께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출발점에서 있다”며 “새로이 얻게 된 자유를 고교생 시절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지성을 습득하는 데 최대한 활용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입학식을 거행

했다. 신입생 2,207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에서 이사장 임영배 큰스님은 “올해는 ‘일류동국, 세계동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또 다른 동국 100년의 출발점”이라며 “동국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인들이 학문과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왔던 섭심(攝心)·신실(信實)·자애(慈愛)·도세(度世)의 교훈을 반드시 체화할 것을 당부했다.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은 “인생에 있어 대학은 창조력을 기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모교의 전인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과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스승의 공덕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는 영원한 東國人 공지와 자부심으로 사회와 만나다



서울캠퍼스 2007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5일 중강당 및 각 학과별 졸업식장에서 열렸다.

학사 2,341명, 석사 451명, 박사 90명 등 총 2,882명이 학위를 받은 이번 졸업식에서 영배 이사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만 동국인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큰 동량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흥기삼 총장은 “여러분은 여느 졸업생들과 다른, 매우 특별한 졸업생들”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동국 백년의 시작이며, 선배들을 이어서 그분들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된 동국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문화관에서 진행된 영화영상학과 학위수여식에서는 지난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故 김형은 학생(SBS 개그우먼)의

아버지 김기봉 씨에게 졸업장이 전달됐다.

故 김형은 학생은 갑작스런 사고로 졸업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졸업준족요건인 140학점을 이수하였고 3학년 재학 당시 졸업작품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여 문학사의 학위가 정식으로 수여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영화영상학과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졸업반지도 故 김형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지난 2월 22일 2007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694명, 석사 22명, 최고지도자과정 27명이 학위 및 수료증을 받았다.

전체수석은 상경대학 경영학전공 이현주(23세) 졸업생으로 4.50점에 평점평균 4.44를 취득하였으며, 전체 차석은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송희정(33세)스님으로 평점평균 4.40을 취득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4.19혁명 추모식 및 동국인 등산대회



‘제47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4월 13일 국립4.19묘지 및 북한산에서 열렸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해 참가한 학생, 교직원, 동문 등 3,500여명은 4.19 국립묘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식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제38회 동국인 등산대회에는 참가자들이 4인1조 또는 40

인 이상의 단체로 팀을 구성하고 북한산 대동문에서 도선사에 이르는 구간을 산행하며 팀 구성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단체팀 금상 1팀에게 70만원의 상금이, 은상 2팀에게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동상 3팀에게는 각각 3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4인1조팀 10팀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됐다.

‘방과후 원어민 교실’ 연다 서울시 중구 사교육비 절감노력의 일환



▲ 정동일 중구청장

초등학교 6학년생 전원을 영어마을에 입소시키는 시책으로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펴고 있는 서울 중구가 이번에는 방과후 원어민 교실을 연다.

중구청장은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원어민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모교 국제교육원이 위탁운영하는 원어민 교실은 1개 학교당 초중고급반 각 15명씩 모두 8개 학교에서 405명이 선발돼 운영된다.

초등학교에 배치될 모교 원어민 교

수들은 자체 세미나를 통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영어교육법을 연구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의 출석 및 학습 진행, 성적표 등을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달한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는 전액 구청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구는 오는 9월부터 초중고 24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26명을 배치하고, 방학 때는 모교와 연계해 통학 영어캠프와 숙식형 원어민 영어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동일(01/05경영,정의 복수전공·본회 부회장)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중은 물론 방학 때까지 영어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同門동정

본사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여러 소식 등을 언제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전북도민회 회장



▲ 이 연 택 (56/61법학·대한체육회 명예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8차 재경전북도민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강북희망포럼 상임대표



▲ 오 진 모 (57/61법학·한국관광개발연구원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2월 23일 강북희망포럼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창립기념포럼은 지난 2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6.3동지회 인천지부 결성대회



▲ 탁 연 복 (58/64법학·6.3동지회 인천지부준비위원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3월 22일 문학컨벤션센터 미주홀에서 6.3동지회 인천지부 결성대회를 가졌다.

케이브릿지 회장



▲ 부 충 식 (63/70경제·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3월 7일 케이브릿지 회장에 취임했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



▲ 이 상 현 (64/68경행·모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한국국정일보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작년 11월 차관급인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검찰·경찰 수사과정의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은탑산업훈장 수훈



▲ 차 중 근 (64/68상학·유한양행 사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3월 21일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는 소화성궤양치료 약물인 레바넥스를 개발, 국내 최초의 혁신신약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창업 이래 현재까지 80년간 무분규를 달성한 공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 김 승 웅 (64/72경영·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2월 13일 부산롯데호텔 신입 대표이사 취임식을 갖고 직원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년퇴임기념 수상록 봉정받아

▲ 김병학(64/68법학·강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동문은 제자들의 모임인 국제통상연구회로부터 지난 2월 3일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정년퇴임기념 수상록을 봉정받았다.

조선일보 출판마케팅 팀장

▲ 김종덕(66/70경영)동문은 최근 조선일보 출판마케팅(주) 사업팀장으로 취임하고 함께 할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TEL:02)6328-6504-7)

미안마 명예대사



▲ 최 윤 섭 (68/72수학·대한불교 관음종 중앙신도회 회장·(주)후림 회장·본회 분과위원장)동문은 지난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미안마정부로부터 미안마 명예대사로 위촉됐다. 최동문은 앞으로 1년동안 미안마의 문화와 생활을 알리며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정회 운영위원회 의장



▲ 이 상 민 (68.3/69.8행원·(주)태림상사 회장·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 현정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선정보공업고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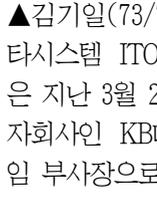
▲ 김 동 식 (70/74체교·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교장)동문은 지난 3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김동식은 모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장에 취임한 것이다.

현대차 강원영업본부장



▲ 어 재 하 (71/75체교·현대자동차 강원 영업 본부장·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인사에서 강원영업본부장으로 영전됐다. 어동문은 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모교 ROTC를 거쳐 현대강관과 현대중공업을 거쳐 현대자동차 이사로 재직해 왔다.

KB데이터시스템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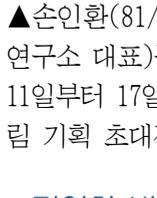
▲ 김기일(73/77전산·KB데이터시스템 ITO사업본부장)동문은 지난 3월 28일 국민은행 IT 자회사인 KB데이터시스템 신입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삼량중고 교장



▲ 황영남(80/84국교·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3월 2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삼량중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기획 초대전 가져



▲ 손인환(81/91미술·젠조형연구소 대표)동문은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갤러리 우림 기획 초대전을 가졌다.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안 승 근 (82/02행원·용인대 객원교수)동문은 지난 2월 22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취임



▲ 김원창(64/71경제·前 정선군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2월 9일 대한석탄공사 회의실에서 임직원과 사업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제33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 김원창 동문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 같이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사장은 “모든 조직원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변화추구 △사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 개척 △노사협력강화 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남강교육대상(성상) 수상



▲ 김원호(64/73식공·85교원·서울 관악중학교 교감)동문은 지난 3월 23일 제17회 남강교육대상(성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일제하의 민족지도자로서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큰 공적을 남긴 남강 이승훈 선생의 교육정신을 살려, 전국의 교육자들 가운데 그 행적이 타인의 모범이 될만한 분을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매년 남강문화재단과 국민일보가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이다

▲ 김원호 동문

아울러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모교 4학년 김성묵 학생이 받았다.

호서대학교 2007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신제품개발의 성과요인 분석’으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무실 확장 이전



▲ 현 학 진 (86/90경제·피플라이프(주) 대표이사·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4월 9일 사무실을 승지빌딩 4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만찬의 자리를 가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지 만 호 (87.3/94.2행원·매일건강신문사 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3월 9일 국회에서 거행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자문위원 임명식에서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 <보건복지/여성>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기능성 양발 특허받아

▲ 김경복(94행원·(주)제주스 코리아 대표)동문은 최근 스 코리아(제주도 화산재)를 이



용한 기능성 양발을 개발해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다. 이 양발은 원적외선을 방출해

무좀방지, 발냄새 제거, 피로 회복 등을 돕는 기능성 양발로 스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배합해 만들었다.(제품 문의는 064)757-3607)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 김 종 찬 (94/99경영·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2월 26일 울산시 소재 지상웨딩 홀뷔페에서 (사)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려불화 전시회



▲ 헤 담 스 님 (98.3/01.2불원·계태사 주지·고려불화연구소 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4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상 수상기념 고려불화 재현 전시회를 가졌다.

두발-왼손 못쓰는 '휠체어 방송작가' 방귀희 동문 대학 강단에 서다



▲ 방귀희 동문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두 발과 왼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하고 26년간 방송작가로 일해 온 방귀희(76/81불교·숙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동문이 대학 강단에 섰다. 경희대에서 이번 학기부터 국문학과 학생 등 57명을 대상으로 '구성작가 실기론'을 강의하게 된 것.

첫 수업에서 휠체어 탄 교수님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 동문은 “장애인이지만 계속 도전했고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수업을 만들어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방 동문은 1981년 모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6년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여러 대학에서 입

학을 거부당한 뒤 입학한 학교였다. 방 동문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장애 여학생의 수석 졸업’으로 관심을 끌게 돼 당시 장애인 대상 첫 방송 프로그램인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첫 출연자로 섭외됐다. 이를 계기로 펜을 잡아 26년간 집필을 맡았다.

방 동문은 자신이 쓴 글을 활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장애인 애청자들을 위해 1991년 장애인 문학지 ‘숫대문학’을 창간했다.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숫대문학’ 평을 쓰던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김종희 교수의 권유 덕분이었다. “학생들이 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망설이던 방 동문에게 김 교수는 “우리 학생들 수준 높다”며 용기를 주었다.

첫 수업 후 방 동문은 학생들에게서 ‘인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취업난이지만 힘을 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30여 통 받았다. 방 동문은 “오른손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학생들 과제물에 코멘트를 직접 달아 줄 수 있거든요”라며 활짝 웃었다.

근로장학사동문회 등반 모임

근로장학사동문회(회장=신윤표·61/65행정·前 한남대학교 총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4월 13일 1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삼악산(등선폭포)에서 등반모임을 가졌다. 유원표

(74통계)동문이 후원한 이번 모임에는 김용현, 윤천영, 이신백, 차영근 동문 등이 참석했다. 다음 모임은 오는 6월 16일 오전 9시 30분 도봉산역 입구에서 만나 산행을 갖는다.

멕시코 아리엘영화제 다큐 최우수상 수상 임은희 감독, 한국과 교량 역할 기대



▲ 임은희 동문

3월 21일 멕시코 ‘아리엘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임은희(91/96불교) 감독.

그날 임은희 감독은 단연 빛났다. 그녀는 허름한 잠바에 낡은 청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관중은 67분짜리 단편영화 하나로 멕시코 대표 영화제 무대에 선 작은 키의 한국인에게 숨을 죽였다.

“위낙 권위 있는 영화제라 수상은 엄두도 못 냈고 외국인에 대한 텃세도 심했어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만족했기에 그냥 입던 옷 입고 시상식에 참석한 건데... 안 그래도 그날 아침에 여배우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와 이름을 확인했는데 이런 일일 줄은 몰랐죠.”

그녀는 현재 멕시코 국립영화제작학교 학생이자 단편영화 감독.

소록도 한센인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섬이 되다(원제 Ser Isla)’로 주목받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아리엘 영화제에 앞서 열린 멕시코 영화제 ‘피코 2007’에서도 ‘국제비평가협회(FIPRESCI)’ 상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영화제 단편영화 부문에 제 영화가 본선에 올랐는데 많은 분이 ‘멕시코 영화 같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이곳 분들은 ‘한국 영화 아니냐’고 말하시고...그래서 멕시코에서도

색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요. 제 영화는 마치 혼혈아 같다고 할까요?”

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잡지에서 소록도 주민들이 손에 갈고리를 끼고 일하는 사진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소설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촬영 스태프 한 명과 소록도를 찾았다.

“700여 명 되는 주민들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 옷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인사도 깎듯이 했죠. 그런 노력 때문인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카스’를 주실 정도로 잘해주시더군요.”

임 감독은 우연히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모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직후 멕시코로 건너가 11년째 머물고 있는 그녀는 사업을 하는 오빠 일을 돕다가 영화제작학교 입학시험에 붙었다.

현지의 한국 영화 위상을 묻자 임 감독은 “2년 전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 이후 ‘친절한 금자씨’나 이정항 감독의 ‘집으로’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그러나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신문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사는 늘 나쁜 것만 나온다”고 말했다.

임 감독의 목표는 바로 한국과 멕시코의 교량 역할이란단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인 이미지 좀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영화 만들면 언젠가는 여기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침없이 불겠죠”

<나의 여행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하철·식사문화·친절한 일본인들 '인상적'

친구들과 복학하기 전 미루고 미루었던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특별히 일본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보다 견문을 넓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하여 후쿠오카와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 8일간의 일정을 짰다.

이 글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느낌에 대해 주로 쓰고 싶다. 일단 일본은 지하철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지역마다 각 지역의 지하철이 있고 한역에 5가지 이상의 노선이 경유하는 역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일본인도 일본 지하철역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곤 한다고 한다. 여행 중 가장 불편하고 헛갈렸던 점은 통행이 우리나라와 반대라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건널목에서 상당히 불편했다. 우리나라는 건널목을 건널 때 왼쪽을 보면 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를 봐야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의 식사문화도 상당히 특이한 점 중 하나였는데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한다. 밥을 먹거나 국을 먹을 때 상당히 불편해 보였지만 매우 능숙한 솜씨로 젓가락으로 국물을 마시듯 후루룩 먹는 일본인의

모습을 보고 매우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보다 일본인은 정말 친절하다는 점이다.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스미마센)와 ‘실례합니다’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오사카지하철을 탈 때 너무 복잡하여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한 분에게 길을 물었고 그분도 오사카에 온 지 얼마 안되 잘 모른다면 직접 역무원에게 문의해 우리를 원하는 장소까지 안내해 주었다.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도쿄를 여행하면서 많은 곳을 구경했는데 특히 온천 지옥순례와 교토의 귀 무덤, 도시사대학의 운동주 시비,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가 기억에 남는다. 화산의 영향으로 온천이 발달한 일본은 여러 가지 온천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 지옥순례라는 여행코스로 만들어 놓았다. 직접 온천을 즐겨보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렸다. 교토의 귀 무덤은 일제시대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후 일왕에게 그 증거로 시체의 귀를 잘라 보냈는데 그 귀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죄없이 죽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혼을 기리려고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수난을 당했을 지 새삼 짐작이 갔다. 교토에는 운동주시인이 유학을



했던 도시사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캠퍼스 안에는 운동주 시비가 있다. 귀 무덤과 운동주 시비를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태극기를 휘날려보고 싶었지만 여긴 일본이고 주변엔 일본인들뿐이라 사실 두려웠던 우리는 조용히 캠퍼스를 빠져나왔다. 야스쿠니 신사는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보아 왔는데 사진촬영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한국을 침략했던 참전 영웅(우리의 입장에서선 원수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겠지만)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일본인들이 참배를 했다.

이번 일본여행을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문화와 사람들 생활도 정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사실 공통된 점이 매우 많았다. 그들에게 깨우쳐줄 것은 깨우쳐 주되 배울 것은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규행(동국대 정보관리학과 02학번)

컴퓨터공학과동문회 장학금 수여 매년 1천만원 이상 장학금 기부



컴퓨터공학과동문회(회장=유상동·77전산)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3월 29일 학과 교수, 동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컴퓨터공학과동문회에서는 모교의 건학 100주년과 컴퓨터공학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10월 13일 후배사랑 실천을 위한 컴퓨터공학과 동창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모금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2006년 1학기 2학기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은 컴퓨터공

과 재학생 중에서 성적과 학과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했으며, 임정규(4학년), 신근우(3학년), 이은지(2학년) 학생에게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컴퓨터공학과 동창장학회는 매년 10만원씩 기부하기로 약정한 장학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매 학기 후배사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컴퓨터공학과 장학금 기부약정 문의 : 컴퓨터공학과 이용규 교수(2260-3828)

식품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에 배영민 동문 만장일치 선출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장영상 66/73식공·중부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6일 모교 상록원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배영민(68/72식공·(주)하나향료 대표·본회 이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박덕성(66/73식공·남영과학(주) 대표) 동문과 정병관(68/72식공)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상 회장은 동문회 발전과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식공인' 상에 육기동(61/65식공·(주)팔파 회장·본회 상무이사) 동문, 신동화(61/65식공·전북대 교수) 동문, 박용철(62/69식공·(주)호전산업 회장) 동문 등이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 동문회 발전기금에 쾌적한 송래섭(66/73식공·(주)바산허브 대표) 동문,

이황(72/76식공·일광무역(주) 대표) 동문에게 공로패를, 또한 2006년도 체육대회에 많은 물품을 협찬한 김세일(76/80식공·해태제과연구소 부사장) 동문, 원종진(86/93식공·(주)진로 차장) 동문, 이창섭(89/93식공·우영인터내셔널 대표) 동문들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신임회장인 배영민 동문은 선임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인명록 완간', '식품공학과 5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 '동문회 발전기금 강화' 등 내실있는 성장을 다짐했다.

만찬 후 여러 동문들이 협찬한 행사품(총 46점)으로 여러 동문·재학생들에게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져서 모두 즐거운 광경을 연출했으며 올 가을(10월) 식공인 날(체육대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경주동창회 이득원 신임회장 선출



▲이득원 신임회장

직할 경주동창회(회장=최용구·81/92한의·수월한의원 원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2월 2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장 이취

입식을 가졌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이득원(82/89미술·경주사무용가구백화점 대표)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동문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교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동문회가 해야 할 일이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모교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동악회 회장 이취임식 송석환 신임회장



▲송석환 신임회장

동악회(회장=한우삼·63/69농학·태양금속공업(주)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14일 월례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회장에는 송석환(64/68농경·동진기업(주) 회장·본회 수석부회장)동문이 취임했다.

북미주총동창회 이근영 회장 취임



▲이근영 신임회장

북미주총동창회(회장=김경재·65/69농학·본회 부회장)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피닉스(아리조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근영(63/67통계·본회 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 취임식을 가졌다.

4.19 혁명동지회 김정걸 회장 취임



▲김정걸 신임회장

4.19혁명동지회(회장=김재진·58/63경제·본회 지도위원)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 YMCA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에 김정걸(58/62법학·4.19혁명동지회 상무위원장·본회 부회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정걸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4.19혁명을 주도 했던 빛나고 값진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빛내도록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김석만 회장 취임



▲김석만 신임회장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89.3/91.2사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 회장·울산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15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에는 김석만(89/91사원·(주)신한건설 대표이사)동문이 취임했으며, 이두철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김석만 회장은 "전임 이두철 회장님과 협의하여 우리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영규 경찰행정학과동문회장



▲강영규 신임회장

경찰행정학과동문회(회장=이희경·68/75경행·前 강원경찰청장·본회 이사)는 지난 3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강영규(70/77경행·경찰공제회 이사장·前 경찰대학장·본회 운영위원)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외과동문회 신년인사회



▲신순범 회장

정치외교학과동문회(회장=신순범·56/61정치·(재)만광장학회 이사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2월 6일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참석 동

문들은 정치외교학과 창설 60주년이 되는 올해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자고 결의했다.

봄맞이 환경지킴이 등반대회 ROTC동문회 남한산성에서 우의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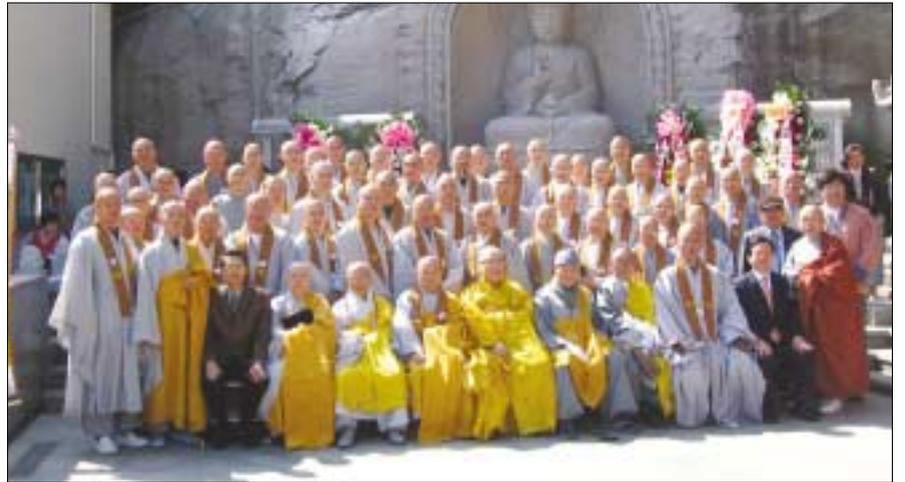
ROTC동문회(회장=손학중·65/69농경·성문산업(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4월 14일 남한산성에서 '봄맞이 환경지킴이 등반대회'를 가졌다.

모임을 가진 주변을 청소하고 등반하는 중에도 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깨

끗이 한 동문들은 성불사, 응성, 서문, 일장천을 거쳐 비호부대로 돌아오는 코스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킴은 물론 동문들의 우의와 체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후 동문들은 오색약수 삼계탕으로 이동해 친목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 입학식 승가학과와 불교학과 각각60명씩 받아



대한불교 관음종 산하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홍파스님·63/67불교·관음종 총무원장·본회 부회장) 입학식이 지난 4월 6일 오후 1시에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봉행됐다.

올해 1기생을 맞이한 서울불교문화대학에는 수행과 중생교화의 바쁜 일정중인 스님들께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고, 체계적인 불교 이론과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승가학과'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에게는 재미있고 쉽게 불교의 체계를 배울 수 있는 '불교학과'를 개설하여 각각 60

명씩의 신입생을 받았다.

2년 과정인 승가학과 입학생에게는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해주거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전통 범음보존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1년 과정인 불교학과 입학생은 과정 이수 후, 재가 불자 품수 수계 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포교사 및 전법사의 자격도 부여된다.

연락처 : 교무처 = 02)763-3001,0054

경영전문대학원 개원 및 입학식



경영전문대학원(원장 = 이병철) 개원식 및 입학식이 지난 2월 27일 남산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모교의 MBA과정은 문화경영 MBA(COMBA)와 General MBA로 나뉘어져 있다. 문화경영 MBA는 경영학 제반에 관한 기초교육영역과 문화경영, 예술경영, 이벤트 기획의 전문영역을 교육하여 문화산업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General MBA는 경영학의 제반 영역에 관한 기초과정을 습득한 후, Marketing, Finance, OB/HR, POM/MS, Accounting, MIS, International Business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우삼 동문 태양금속공업 창립 기념식



한우삼(63/69농학·태양금속공업(주)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3월 1일 태양금속공업(주)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우삼 회장은 기념사에서 "2007년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냉간 단조 분야에서의 네임밸류를 만들어 최고의 종합단조회사로 성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인도법인에서 근무하게 될 인도 기술연수생들에게 교육평가를 기초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시상했다.

동국대 병원 암센터 개원

한 의사 2명 포함 총 35명의 진료팀으로 구성



“입원중인 환자가운데 40%정도가 암환자입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가족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은데다 넓고 쾌적한 병실환경에 의료진과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이 환자들의 가슴에 와 닿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2일 오후 5시 공식개원식을 갖고 문을 연 모교 일산병원 암센터 소장을 맡은 김홍용 교수(외과)는 대학병원이라지만, 문을 연지 1년반밖에 안된 병원에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들이 물리는 배경을 나름대로 풀이했다.

동대 일산병원은 이같은 환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원이후 운영해 오던 암 치료팀을 확대 개편하고 35억원을 들여 최신모델의 선형가속기를 도입하는 등 의료장비와 기기를 보강해 암센터를 만들게 된 것. 특히 이번에 동대 일산병원이 암센터를 개원하면서 들여온 최신형 선형가속기는 암조직 조사면의 해상도를 5mm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최신 영상처리 및 CT 모의치료기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정상조직의 손상은 최대한 줄이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 암 치료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센터는 한 의사 2명을 합쳐 모두 35명의 진료팀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은 침술을 이용한 통증치료와 암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식이요법 등에서 한방을 활용하면 암 환자 치료협진치료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대 일산병원 암센터는 71 병동에 방사성동위원소치료실과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무균실을 설치하고 선형가속기와 PET CT가 위치한 지하 1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동대 일산병원은 환자가 암센터를 찾아오면 그날 외래진료와 검사를 해 빨리 진단하고 입원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의 이해를 돕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암센터에 상주하는 암 전문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수술후 지속적으로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명목 교수 동국대 일산병원장 취임



▲이명목 원장

심장혈관내과 이명목 교수가 2대 일산병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이명목 병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

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미국 순환기학회 정회원, 동국대 일산병원·한방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년간 병원을 이끌어 온 이석현 원장은 의료정책고문으로 위촉됐다.

동국의료원 인사이동

- ▷일산병원장 이명목 ▷경주병원 원장 김장현 ▷의료혁신기획단장 장 겸 포항병원장 정필현 ▷분당 성낙진 ▷일산행정처장 김영길 ▷한방병원장 김경호 ▷경주한방병원 경주행정처장(내정) 이응세

경기북부서 첫 인공와우 이식술 성공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 “노인 난청치료 꼭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이명목)은 지난 4월 3일 첫 인공와우 이식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경기북부권 병원에서는 처음 시행된 인공와우 수술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는 “양측 만성 중이염을 동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활해 오던 58세 여자 환자에게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했으며, 수술직후 X-ray촬영으로 성공적인 전극삽입을 확인하고, 청력검사 NRI (Neural response imaging)

를 시행해 모든 전극에서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20년 전부터 앓아 온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타인과의 대화시에는 입모양을 보고 생활해 왔다. 수술 전 환자의 청력은 110dB로 양측 모두 전농 상태였으며 이번 수술 성공으로 희망을 얻게 됐다.

인공와우 이식술이란 청신경에 전기적인 자극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손상된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전기적 장치를 정원창 가까이에 구멍을 만들어 삽입하는 수술이다. 또한, 인공와우는 외부와 내부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장치(마이크, 안테나, 어음처리기)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장치(몸속에 넣어주는 이식기)는 전달받은 신호를 전극을 통해 내이로 전달하여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정심어린 회비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는 총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기간 : 2007년 1월 30일 ~ 2007년 4월 23일

알림

1. 회비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 졸업년도·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발전기금 납부 동문(2006.3.1~2007.4.23)

- ▲원용선(59/63영문) 회장=1억원
- ▲정상영(57/61법학) 고문=1억원
- ▲송석환(64/68농경) 수석부회장=3천만원

- ▲이만식(91행원)=2
- ▲이백우(93불원)=2
- ▲이명인(85한외)=2
- ▲이봉근(60법학)=2
- ▲이부성(67경제)=2
- ▲이삼봉(64사학)=2
- ▲이상구(95영문)=0.2
- ▲이상술(91법학)=2
- ▲이상식(00행원)=2
- ▲이상원(81경행)=2
- ▲이상일(71사공)=2
- ▲이석봉(87행원)=2
- ▲이석준(59정치)=2
- ▲이성규(92행원)=2
- ▲이순기(98행원)=2
- ▲이순봉(99행원)=2
- ▲이승진(95정치)=2
- ▲이승태(78무역)=2
- ▲이식(89사원)=2
- ▲이신철(63법학)=2
- ▲이양길(68인철)=2
- ▲이양현(02행원)=2
- ▲이영래(04일원)=2
- ▲이영우(67정치)=2
- ▲이영찬(74농학)=2
- ▲이용국(78경영)=2
- ▲이용규(00교원)=2
- ▲이용식(91정치)=2
- ▲이우운(73농생)=2
- ▲이우현(94한외)=2
- ▲이윤정(96한외)=2
- ▲이은숙(05법학)=2
- ▲이은조(80경원)=2
- ▲이의신(00국원)=2
- ▲이인순(04불원)=2
- ▲이장길(62역사)=2
- ▲이재양(79토목)=2
- ▲이재창(06행원)=2
- ▲이정수(88경영)=2
- ▲이정구(60사학)=2
- ▲이정모(65정치)=2
- ▲이정모(83경영)=2
- ▲이정인(72공경)=2
- ▲이제일(87경영)=2
- ▲이종서(75법학)=2
- ▲이종원(69사공)=2
- ▲이종찬(70정치)=2
- ▲이종복(93행원)=2
- ▲이종량(58정치)=2
- ▲이지중(00일원)=2
- ▲이진욱(98법학)=2
- ▲이창근(76체교)=2
- ▲이풍규(64법학)=2
- ▲이화식(61법학)=2
- ▲이혜규(59법학)=2
- ▲이현수(61법학)=2
- ▲이형진(81정치)=2
- ▲이호택(68인학)=2
- ▲이흥우(66농경)=2
- ▲이효재(94불원)=2
- ▲임우택(89경영)=2
- ▲임인규(81승가)=2
- ▲임종래(64인학)=2
- ▲임흥홍(88경원)=2
- ▲임현경(76농경)=2
- ▲임화수(05한외)=2
- ▲임휘운(98국원)=2
- ▲장경식(82지교)=2
- ▲장규운(03행원)=2
- ▲장명수(03사원)=2
- ▲장문순(90불교)=2
- ▲장세원(06행원)=2
- ▲장승수(91정치)=2
- ▲장영집(89경원)=2
- ▲장영호(85법학)=2
- ▲장희규(79행원)=2
- ▲전병덕(60법학)=2
- ▲전영선(76사공)=2
- ▲전영운(62경제)=2
- ▲전윤남(65농경)=2
- ▲전익흥(89법학)=2
- ▲정갑영(81정치)=2
- ▲정계근(76정치)=2
- ▲정광호(94경영)=2
- ▲정만모(81토목)=2
- ▲정병규(93경원)=2
- ▲정병주(87경영)=2
- ▲정병태(93사원)=2
- ▲정인스님(80불원)=2
- ▲정연환(62정치)=2
- ▲정영두(90경원)=2
- ▲정영식(63법학)=2
- ▲정영진(88전산)=2
- ▲정용태(90행원)=2
- ▲정용호(71정치)=2
- ▲정용열(92경원)=2
- ▲정원섭(83행원)=2
- ▲정윤식(73법학)=2
- ▲정일준(79경제)=2
- ▲정지훈(99물리)=2
- ▲정준덕(59법학)=2
- ▲정태근(78무역)=2
- ▲정효현(73경영)=2
- ▲정홍진(불원 95入)=2
- ▲조근자(80경원)=2
- ▲조선주(83행원)=2
- ▲조선태(72행원)=2
- ▲조재경(78법학)=2
- ▲조재문(00국원)=2
- ▲조정현(03교원)=2
- ▲조준수(89경원)=2
- ▲조태호(60정치)=2
- ▲조한운(65사학)=2
- ▲조화제(02국원)=2
- ▲주정호(96회계)=2
- ▲지정환(92미술)=2
- ▲진성기(01행원)=2
- ▲차대영(96경행)=2
- ▲차도석(98행원)=2
- ▲차현섭(94경원)=2
- ▲채정환(92행원)=2
- ▲천기근(93사공)=2
- ▲천상덕(04일원)=2
- ▲최광서(83무역)=2
- ▲최병민(85행원)=2
- ▲최병준(95사원)=2
- ▲최병호(05사원)=2
- ▲최상관(97사원)=2
- ▲최승우(88경제)=2
- ▲최영규(92행원)=2
- ▲최영대(01사원)=2
- ▲최인달(56법학)=2
- ▲최재오(61법학)=2
- ▲최준근(01일원)=2
- ▲최중대(61법학)=2
- ▲최중환(65법학)=2
- ▲최준원(83무역)=2
- ▲최중열(62정치)=2
- ▲최정호(90행원)=2
- ▲최현진(81정치)=2
- ▲최호택(68인학)=2
- ▲최희우(66농경)=2
- ▲최연준(94불원)=2
- ▲최우택(89경영)=2
- ▲최인규(81승가)=2
- ▲최종래(64인학)=2
- ▲최흥홍(88경원)=2
- ▲최현경(76농경)=2
- ▲최화수(05한외)=2
- ▲장경식(82지교)=2
- ▲장규운(03행원)=2
- ▲장명수(03사원)=2
- ▲장문순(90불교)=2
- ▲장세원(06행원)=2
- ▲장승수(91정치)=2
- ▲장영집(89경원)=2
- ▲장영호(85법학)=2
- ▲장희규(79행원)=2
- ▲전병덕(60법학)=2
- ▲전영선(76사공)=2
- ▲전영운(62경제)=2
- ▲전윤남(65농경)=2
- ▲전익흥(89법학)=2
- ▲정갑영(81정치)=2
- ▲정계근(76정치)=2

고문

- ▲윤일균(67.3/69.2행원)=30
- ▲최형우(57/63정치)=30
- ▲현해스님(64/68불교)=30
- ▲황명수(49/53정치)=50

지도위원

- ▲권오훈(59/61영문)=30
- ▲김행남(61/65정치)=30
- ▲박은규(59/61정치)=30
- ▲심경모(57/61영문)=30
- ▲이석용(54/58정치)=30
- ▲인종식(53/57경제)=30
- ▲장해수(00/49사학)=30
- ▲종상스님(86.3/88.2행원)=30
- ▲현성스님(72.3/73.2행원)=30

부회장

- ▲김규태(93.9/95.8행원)=100
- ▲김대옥(65/74 경영)=100
- ▲김재기(56/60경제)=100
- ▲김재음(65/69경영)=100
- ▲김진선(71/74행정)=100
- ▲노준식(58/62정치)=100
- ▲맹성스님(64/68불교)=100
- ▲박종윤(56/59경제)=100
- ▲박진수(59/63국문)=100
- ▲백문기(60/63법학)=100
- ▲서문양(95.3/97.2경원)=100
- ▲서정호(71/76경영)=100
- ▲선목 해간스님(83/88불원)=100
- ▲심호명(98.9/01.8국원)=100
- ▲엄신탁(73.9/75.8경원)=100
- ▲월탄스님(62/68불교)=100
- ▲이두철(89.3/91.2사원)=200
- ▲이상진(96.3/98.8일원)=100
- ▲이재근(64/68경제)=100
- ▲이창규(91.6/93.5경원)=100
- ▲정부자(93.3/95.2행원)=100
- ▲정인악(55/60화학)=100
- ▲정진태(00.9/02.8행원)=100
- ▲채규민(58/75정치)=100
- ▲한우삼(62/69사공)=100
- ▲한진문(00/05경영/정치)=100
- ▲홍영춘(61/65불교)=100

감사

- ▲심현식(59/63상학)=100

운영위원

- ▲박찬대(56/62농학)=100

분과위원장

- ▲김오현(76/80체교)=50

사무이사

- ▲강수일(59/64상학)=20
- ▲공재현(69/74무역)=20
- ▲구은수(78/85경행)=20
- ▲김교근(59/65경영)=20
- ▲김기권(59/63통계)=20
- ▲김대식(66/70사공)=20
- ▲김사홍(79.3/80.2행원)=20
- ▲김석현(96.3/99.2일원)=20
- ▲김성식(60/64농경)=20
- ▲김성호(91.9/93.8불원)=20
- ▲김세준(71/75화학)=20
- ▲김수철(58/75경제)=20
- ▲김용길(61/65법학)=20
- ▲김원창(64/71경제)=20
- ▲김윤식(62/66사공)=20
- ▲김충식(61/63상학)=20
- ▲김홍우(60/64연영)=20
- ▲박명순(64/68불교)=20
- ▲박장규(56/61법학)=20
- ▲방조원(77.9/78.8행원)=20
- ▲백한이(95.3/97.2예원)=20
- ▲송영근(84/88영문)=20
- ▲신규현(75/79사공)=20
- ▲여운음(61/65법학)=20
- ▲오재관(67/71농경)=200불
- ▲윤명균(77/81영문)=20
- ▲윤용숙(93.3/95.2불원)=20
- ▲윤종필(83/87사회개발)=20

- ▲이범규(66/73농학)=20
- ▲이병화(63/64정치)=20
- ▲이재호(79.3/81.2경원)=20
- ▲임규영(68/75경제)=20
- ▲자용스님(91.3/93.2불원)=20
- ▲정동호(72/77정치)=20
- ▲정상재(84/86행원)=20
- ▲정연수(70/74과교)=20
- ▲진재경(73/77영문)=20
- ▲차중근(64/68상학)=20
- ▲최덕현(59/63상물)=20
- ▲최병식(59/64불교)=20
- ▲태진스님(86.3/88.2행원)=20
- ▲허정식(62/66경영)=20
- ▲허창식(75/82영문)=20
- ▲해답스님(98.3/01.2불원)=20

이사

- ▲권수구(75/82국문)=10
- ▲권연옥(72.3/75.2행원)=10
- ▲권중원(64/68상학)=10
- ▲권희경(92.3/94.2경원)=10
- ▲김계성(78/81승가)=10
- ▲김관수(63/66행정)=20
- ▲김덕현(71/75농학)=10
- ▲김동길(93.3/95.2경원)=10
- ▲김래동(80.3/81.2행원)=10
- ▲김보열(57/62경제)=10
- ▲김삼철(63/67농학)=20
- ▲김승보(58/63법학)=10
- ▲김성환(67/71도시)=10
- ▲김수창(65/69불교)=10
- ▲김억겸(64/71농학)=10
- ▲김영환(63/67정치)=10
- ▲김영희(71/79사공)=10
- ▲김완식(64/71농학)=10
- ▲김윤경(59/63법학)=10
- ▲김재홍(56/60경제)=10
- ▲김중찬(94/97경영)=10
- ▲김진(71/75농경)=10
- ▲김진용(58/65경제)=10
- ▲김창기(95.9/97.8경원)=10
- ▲김철규(84.3/86.2경원)=10
- ▲김한주(67.9/77.2일원)=10
- ▲김호철(81/88정치)=10
- ▲남재우(65/69경영)=10
- ▲류복수(95.3/96.2사원)=10
- ▲문순구(68/72화학)=10
- ▲문준수(69/74인철)=10
- ▲문찬식(73/78화공)=10
- ▲민흥기(68/72법학)=10
- ▲박기택(69/73경행)=10
- ▲박명국(76/83체교)=10
- ▲박복식(57/60법학)=10
- ▲박봉선(60/66경제)=10
- ▲박상문(64/66국문)=10
- ▲박욱입(88.9/89.8행원)=10
- ▲박종국(73/81경행)=10
- ▲박종재(92/94경영)=10
- ▲박주근(73/77경행)=10
- ▲박철현(69/73경계)=10
- ▲박흥서(68/72통계)=10
- ▲방재홍(80.3/81.2경원)=10
- ▲백주홍(59/63법학)=10
- ▲부충식(63/70경제)=10
- ▲석명수(72.3/74.2행원)=10
- ▲손낙훈(65/69국문)=10
- ▲손문영(69/73사공)=10
- ▲손창수(81/87한외)=10
- ▲신명식(95.3/97.2정치)=10
- ▲신현태(54/57경제)=10
- ▲신형철(77/81체교)=10
- ▲안규호(97.9/98.8사원)=10
- ▲양수성(61/65경영)=10
- ▲오경택(74/78토목)=10
- ▲오금동(81/85영문)=10
- ▲오택원(73/77국문)=10
- ▲유문희(65/69사공)=10
- ▲유종철(73/77건축)=10
- ▲유태호(74/78토목)=10
- ▲윤동규(75/79물리)=10
- ▲윤영창(63/67국문)=10
- ▲윤천수(72/75정치)=20
- ▲윤태백(61/66경제)=10
- ▲이경필(65/69경행)=10
- ▲이규형(61/68행정)=10
- ▲이근영(63/67통계)=200불
- ▲이덕원(68/72사학)=10
- ▲이명언(67/71경제)=10
- ▲이상민(68.3/69.8행원)=10

- ▲이석우(63/71행정)=10
- ▲이상복(71/75전자)=10
- ▲이영구(64/68불교)=10
- ▲이영안(65/69경영)=10
- ▲이영환(77.9/79.8경원)=10
- ▲이용훈(72/77농생)=10
- ▲이재수(87.3/89.8경원)=10
- ▲이점구(96.9/99.8사원)=10
- ▲이재근(69/73경제)=10
- ▲이준표(71/75정치)=10
- ▲이창영(49/52정치)=10
- ▲이정수(87/91사공)=10
- ▲이준자(95.9/97.8경원)=10
- ▲이준필(99.3/01.2불원)=10
- ▲이치화(70/74국문)=10
- ▲이한우(83.3/84.2교원)=10
- ▲이현수(64/69상학)=10
- ▲이현호(66/70법학)=10
- ▲이환기(66/70행정)=10
- ▲임영신(53/57경제)=10
- ▲임화(51/55법학)=10
- ▲장구한(91.9/93.2불원)=10
- ▲장민수(72/77농경)=10
- ▲전석한(99.3/01.8행원)=10
- ▲전일길(63/67통계)=10
- ▲정국진(80/84체교)=10
- ▲정낙진(81.9/83.8행원)=10
- ▲정의섭(70/77농경)=10
- ▲조병수(71/75경제)=10
- ▲조석규(68/72수자원공학)=10
- ▲조현수(60/64농경)=10
- ▲조홍기(58/63영문)=10
- ▲진창훈(66/70상학)=10
- ▲차영근(76/80화학)=10
- ▲최락상(71/75정치)=10
- ▲최세화(48/56국문)=10
- ▲토진스님(87/91선학)=10
- ▲한강택(72/79경행)=10
- ▲한규범(78.9/80.8경원)=10
- ▲한길재(71/75경행)=10
- ▲한대현(89.9/91.8경원)=10
- ▲한동식(99.9/00.8사원)=10
- ▲한성규(65/69물리)=10
- ▲허남태(79/87조경)=10
- ▲허윤범(97/01행정)=10
- ▲허덕영(67/71연영)=10
- ▲홍성영(65/69인학)=10
- ▲홍성표(67/71도공)=10
- ▲황규명(65/69사공)=10
- ▲황성준(74/78법학)=10

일반회원

- ▲가재강(68경영)=2
- ▲강민(85토목)=2
- ▲강병덕(03행원)=2
- ▲강수창(66상학)=2
- ▲강신학(98행원)=2
- ▲강영길(97경원)=2
- ▲강용호(88경원)=2
- ▲강춘일(57법학)=2
- ▲고민수(73농경)=2
- ▲고성대(59법학)=2
- ▲고창식(83정치)=2
- ▲고창환(68경영)=2
- ▲곽중영(83경원)=2
- ▲구동규(86농학)=2
- ▲권달천(86행원)=2
- ▲김경복(01행원)=2
- ▲김경복(94행원)=2
- ▲김경선(88국교)=2
- ▲김경수(74행정)=2
- ▲김정수(81가교)=2
- ▲김경자(00일원)=2
- ▲김광복(97행원)=2
- ▲김기복(89행원)=2
- ▲김길영(00경원)=2
- ▲김덕수(82행원)=2
- ▲김덕영(91정치)=2
- ▲김동래(74화공)=2
- ▲김동우(82법학)=2
- ▲김동우(92경행)=2
- ▲김동원(64정치)=2
- ▲김동호(71행정)=2
- ▲김민규(77경제)=2
- ▲김민재(62정치)=2
- ▲김명자(88교원)=2
- ▲김병운(85경원)=2
- ▲김병택(77일원)=2
- ▲김부남(70사공)=2
- ▲김부동(90교원)=2
- ▲김상규(98국원)=2
- ▲김상보(92교원)=2
- ▲김상원(99정치)=2
- ▲김상철(94산원)=2
- ▲김선일(78미술)=2
- ▲김선재(78경원)=2
- ▲김성호(85경제)=2
- ▲김성호(95행원)=2
- ▲김세운(61경제)=2
- ▲김승태(00불원)=2
- ▲김수기(65경제)=2
- ▲김승태(79정치)=2
- ▲김시현(65인학)=2
- ▲김실(62입학)=2
- ▲김영운(78경영)=2
- ▲김영운(83정치)=2
- ▲김용근(95행원)=2
- ▲김용진(법등)=2
- ▲김용성(99교육)=2
- ▲김우용(72화학)=2
- ▲김운용(97문원)=2
- ▲김우연(96불원)=2
- ▲김원기(01행원)=2
- ▲김윤남(95경원)=2
- ▲김유희(83경원)=2
- ▲김인석(89사원)=2
- ▲김인양(81농경)=2
- ▲김재범(99불원 入)=2
- ▲김재수(88행원)=2
- ▲김재철(91한외)=2
- ▲김재환(98산원)=2
- ▲김정갑(00행원)=2
- ▲김정수(82경원)=2
- ▲김정인(83행원)=2
- ▲김정자(91경원)=2
- ▲김준대(96행원)=2
- ▲김종택(70경영)=2
- ▲김종원(64국문)=2
- ▲김종익(92행원)=2
- ▲김진우(88한외)=2
- ▲김준수(02언원)=2
- ▲김중환(80행원)=2
- ▲김진원(65경영)=2
- ▲김찬동(98경원)=2
- ▲김찬희(70행원)=2
- ▲김창수(64정치)=2
- ▲김철(64입학)=2
- ▲김관준(77경영)=2
- ▲김해근(64인학)=2
- ▲김현삼(85영문)=2
- ▲김형곤(87경원)=2
- ▲김형식(95행원)=2
- ▲김홍기(79무역)=2
- ▲김홍철(65경영)=2
- ▲김홍업(89경영)=2
- ▲김홍태(76공경)=2
- ▲김화식(중인)(93불원)=2
- ▲김훈(79행원)=2
- ▲김희동(04경영)=2
- ▲김희석(83행원)=2
- ▲김희환(63입학)=2
- ▲나연표(59경제)=2
- ▲나재문(023산원)=2
- ▲남시혁(58정치)=2
- ▲남은우(97사공)=2
- ▲노영운(98불원)=2
- ▲노정선(80일원)=2
- ▲도각스님(00불원)=2
- ▲도성스님(이대우)(84승가)=2
- ▲무학사(=)2
- ▲문대성(59정치)=2
- ▲문성숙(77일원)=2
- ▲문태생(77승가)=2
- ▲문현일(93경원)=2
- ▲문병덕(81경영)=2
- ▲민병천(86사공)=2
- ▲박경희(70행원)=2
- ▲박광래(61경제)=2
- ▲박동녀(00행원)=2
- ▲박상욱(96법학)=2
- ▲박성춘(87법학)=2
- ▲박영길(00불원)=2
- ▲박완진(80정치)=2
- ▲박용수(95행원)=2
- ▲박용재(01사원)=2
- ▲박은주(03경원)=2
- ▲박재철(93행원)=2
- ▲박정우(94산원)=2

- ▲박종철(00문예원)=2
- ▲박주생(94입학)=2
- ▲박주홍(88농학)=2
- ▲박지원(58경제)=2
- ▲박현우(04회계)=2
- ▲박훈(83경원)=2
- ▲방명환(99전산통계)=2
- ▲배대기(75행원)=2
- ▲배동기(83경영)=2
- ▲배동우(96경원)=2
- ▲배병기(98행원)=2
- ▲배충남(66상학)=2
- ▲백승민(02행원)=2
- ▲보문사(=)2
- ▲봉안사(사찰)=2
- ▲서동배(83무역)=2
- ▲서동원(91경행)=2
- ▲서동태(96사원)=2
- ▲서승우(61법학)=2
- ▲서창식(64상학)=2
- ▲서홍식(61정치)=2
- ▲손상필(66경제)=2
- ▲손석창(86법학)=2
- ▲손성훈(00교원)=2
- ▲손수익(89한외)=2
- ▲손원조(87행원)=2
- ▲손호중(93행원)=2
- ▲송성창(98미술)=2
- ▲송세현(02불문원)=2
- ▲송수용(96행원)=2
- ▲송영복(75행원)=2
- ▲송윤식(60법학)=2
- ▲송재신(62법학)=2
- ▲신상규(94한외)=2
- ▲신상일(96한외)=2
- ▲신사춘(65정치)=2
- ▲신사준(60수학)=2
- ▲신원하(63경영)=2
- ▲신재현(61영문)=2
- ▲신정균(90정치)=2
- ▲신현수(83국문)=2
- ▲신호철(89물리)=2
- ▲심달섭(99경제)=2
- ▲안경환(79행원)=2
- ▲안병헌(64화학)=2
- ▲안병현(05행원)=2
- ▲안창일(97행원)=2
- ▲안춘태(71법학)=2
- ▲안한상(69국문)=2
- ▲양명(98국원 入)=2
- ▲양윤정(01일원)=2
- ▲양종현(79경원)=2
- ▲오득규(75행원)=2
- ▲오영석(87농학)=2
- ▲오하영(61법학)=2
- ▲오학선(96행원)=2
- ▲옥봉규(73행원)=2
- ▲우건태(84화공)=2
- ▲우국원(78행원)=2
- ▲우귀근(92불원 入)=2
- ▲우희주(04행원)=2
- ▲원성희(87행원)=2
- ▲원유환(69상학)=2
- ▲유광식(78농학)=2
- ▲유광호(82농생)=2
- ▲유득수(91불원 入)=2
- ▲유상갑(66법학)=2
- ▲유상진(72농학)=2
- ▲유양훈(77경영)=2
- ▲유영근(92경원)=2
- ▲유주성(제정)(불원)=2
- ▲유하상(94경원)=2
- ▲윤형우(63법학)=2
- ▲윤경수(58영문)=2
- ▲윤경재(74행정)=2
- ▲윤성규(91화학)=2
- ▲윤용순(02일원)=2
- ▲윤종식(85행원)=2
- ▲윤주천(84토목)=2
- ▲윤종구(00국원)=2</